

유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 “유아의 음정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

김 영 연*

차 례

- I. 유아 음악교육학의 기저 이론
- II. 유아 음악 학습의 기본 요소
- III. 유아의 음정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
- IV. 결론 및 제언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에서도 유아음악교육학의 학문적 독립성은 몇몇 유아음악교육가에 의해 꾸준히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음악교육을 다른 교육과정과의 연결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고, 가창, 감상, 놀이, 창작등의 여러가지 음악활동 중 극히 일부분적인 표현 활동만을 강조하여서 아동 중심적이라기 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음개념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려는 음악교육 본래의 목적은 외면 당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전이과정으로 여겨지는 유아음악수업으로 부터의 탈피를 위한 음악교육학적 이론의 수용은 유아교육가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음악 교육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하여 음악교육과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음악교육학의 이론적 배경의 인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마치 미국의 음악교육가인 Campbell과 Scott-Kassn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음악교육가들에게 있어서 음악교육적 이론의 결여는 운전사가 없이 차를 모는 일이나, 새가 날개없이 나

* 부천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는 일 또는 프로그램 없는 컴퓨터를 다루는 것과 바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유아음악교육학에 관련되는 여러 교육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인류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유아음악교육학의 기초 이론을 정립하고 둘째, 이러한 이론이 유아음악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유아 음악학습의 제반 요소와 셋째, 앞에서 설명된 이론과 교육적 요소를 바탕으로 정립된 구체적 교수 전략을 음정지도와 연관시켜서 유아의 주요 음악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부르기과 신체표현, 놀이하고 감상하기, 독보력 키우기, 창작하기로 구분하여 소개함으로써 유아음악교육학의 이론과 실재를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I. 유아 음악교육학의 기저 이론

1. 단계설(Stage and Phase Theories)

단계설(Stage theory)는 유아나 성인 학습자가 지식을 획득하는데 전제되는 학습의 과정을 삼단계 내지 오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론이다. Piaget는 인지발달 단계를 연령에 기초하여 감각운동기(sensory-motor stage: 0-2세), 전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2-7세),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 7-12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12세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특별히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2-7세 사이에 속하는 어린이들은 아직 논리적 사고가 미숙한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사물의 직접적인 조작과 접촉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요구한다(Piaget, 1952).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을 음악교육에 적용하여 보면, 유아기에 속한 어린이들이 가능한 많이 듣고, 노래하고, 놀이하며,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유아교육자들에 의하여 풍부히 제공되어야 함을 뜻하며 이는 곧 상징적 접근 이전에 소리를 통한 음악지도방법(sound-before-symbol)을 따라줄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피아제가 연령에 기초한 종적(longitudinal) 성숙이론을 주장한데 반하여, Bruner는 횡적(transversal) 성숙개념에 입각한 단계설을 펼친다. 그는 행동적 접근단계(enactive stage-action), 시각적 접근단계(iconic stage-imaging), 상징적 접근단계(symbolic stage-representation)가 한 가지 학습내용에 대하여 동시에 그러나 순서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인간의 경험이 정립된다고 주장한다(Bruner, 1966). 예를 들면, 지휘법을 학습할 때 제일 먼저 학습자가 몸이나 팔로 멜로디에 따라서 움직여보다가(행동적 단계), 자신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그려보고(시각적 단계), 마지막으로 지휘법에 쓰이는 기호에 맞추어 지휘를 시도하는 방법(상징적

단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브루너의 단계설은 피아제의 이론과 달리 여러 연령의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학습내용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단계설을 입증한 음악연구자로 L. Sosniak을 들 수 있다. 소스니악은 피아노 전문 연주자(concert pianists)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하여 단계적 발달이론(Phase theory)을 전개해 나갔는데 그녀의 연구(1986)에서 발견된 삼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The early stage)에서는 유아의 호기심이 모든 음악활동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제2단계(The middle stage)에서는 음악교사의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에 따른 아동의 반복적 모방 학습이 중요시 되었으며 제3단계(The later stage)에서는 훈련의 결과이긴 하되 음악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승화된, 자기 표현의 시도가 음악연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소스니악의 발견은 인류학자인 Gregory Bateson이나 종족 음악학자인 Catherine Ellis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들은 문화(음악)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는 우연한 접촉(informal encounters with music in the environment)에서 출발하여 차차 개체의 의도적 관심(conscious attention)에 의해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마지막에는 나름대로 정립된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Campbell & Scott-Kassner, 1995, 21). 그들의 이러한 단계적 과정은 소스니악의 단계발달 이론에서와도 같이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독특하고도 세련스럽게 정련된 자기 표현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문화(음악)에 대한 이해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2. 음악 놀이와 사회화 이론(Theories of Musical Play and Socialization)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와 놀이를 하면서 혹은 성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놀이는 유아에게 심각한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반복과 즉흥적 작곡을 유도하는 음악놀이는 유아의 음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교사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음악 놀이의 안내자로서 아이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Stanley Hall이나 Jean Jacques Rousseau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인기에 대비해 나간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Sahakian & Sahakian, 1974) Carl Orff도 음악놀이를 음악학습의 주요한 방법으로 택하고 있다(Landis & Carder, 1972).

러시아의 사회심리학자인 Lev Vygotsky는 근접지대 개념(Zone of proximation theory)에 입각한 사회화 이론을 주장한다. 근접지대 이론이란 인간의 발달은 이미 성취된 기능과 현재 성취 단계에 있는 기능의 차이가 나타내는 거리 간의 수치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발달 이론이다(Vygotsky, 1978). 따라서 성인이 어린이와의 놀이과정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적 신호(예: 언어적 코멘트, 얼굴 표정, 몸짓, 눈 신호등)

가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문화적 신호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학습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교사와 어린이가 음악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어린이는 자기가 접하는 음악 문화를 점차 이해하게 되고, 경험한 음악의 전통적 요소와 친숙해짐으로써(즉 음악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적 독립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3. 사회 학습이론과 강화이론(Social Learning and Reinforcement Theories)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출발된 이 두 이론은 교수-학습에 깊이 관여되는 이론들이다.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학습환경적 요소를 중시하는 반면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은 개인의 학습방법을 중시한다. 사회 학습이론자로서 Albert Bandura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모델로 하여 그와 유사한 상황과 행동을 기억하였다가 후에 모방 또는 재창조한다고 한다(Bandura, 1977). 사회학습이론은 음악교실에도 흔히 적용된다. 교사의 모델링은 아이들의 연주 방법과 스타일을 결정적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교사는 정확하고 훌륭한 음악활동의 모델 제공자로서 음악수업을 이끌 때 비로소 아이들의 음악 학습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사회 학습이론이다.

행동심리학과 학자들이 주장해 온 강화이론의 대표자인 B. F. Skinner는 조작적 조건화(Theory of operant conditioning)에 따른 학습이론을 폈다(Skinner, 1953). 조작적 조건화는 첫째, 학습자에게 제시된 자극; 둘째, 자극의 결과로 보여진 학습자 반응; 셋째, 결과 반응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자극(Stimulus-Response-Stimulus: SRS)의 제시를 뜻한다. 그는 특히 자극의 조작화를 학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교사의 웃음이나 끄덕임, 긍정적인 언어가 아이들의 학습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스키너의 강화이론은 앞에서 소개된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음악 수업에도 물론 활용되어질 수 있으며 아이들의 바람직한 음악 표현을 위하여 교사는 다양한 음악 환경의 조성자, feedback의 제공자, 적합한 모델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Clifford K. Madsen과 그의 동료들도 강화이론을 음악수업에 적용시켰고 또한 강화이론은 음악을 통한 아동의 부정적 행동의 치료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Campbell & Scott- Kassner, 1995).

4. 학습 스타일 이론(Learning Style Theories)

학습 스타일 이론은 학습자가 학습과정 속에서 선호하는 학습방법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이론으로서 이는 즉 개인차를 중시하므로 교수 전략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이론이다. R. M. Restak(1979)은 인간의 두뇌 기능이 학습방법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좌반구 두뇌에서는

언어적, 논리적, 수학적 기능이 원활하고 우반구 두뇌에서는 음악적, 정동적(情動的) 기능이 활발하다고 함으로써 학습자의 일면 의도적인 두뇌사용을 강조한 데 반하여 Howard Gardner(1983)는 다양한 지식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두드러지게 뛰어나는 학습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이것은 지극히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현상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폈다. 따라서 가드너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 중에서 한 어린이에게 가장 두드러진 능력을 갖춘 영역이 발견되면 이 영역에 대하여 조기교육을 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다. 레스틱이나 가드너의 이론 이외에도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접근에 따라 아동의 학습방법이 달라질 수 있든가, 교실의 소음도, 태양광도, 온도 및 교실내 디자인등 교사가 조절할 수 있는 학습환경에 따라서 아동들의 학습 잠재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학습스타일 이론이 있으며 또한 아동의 성격이 외향적이나 내성적이나, 혹은 이지적이나 감성적이나, 혹은 즉흥적이나 사고적이나에 따라 학습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러 학자(예: I. Meyers, P. Briggs, Rita and Kenneth Dunn)의 주장이 학습 스타일 이론을 뒷받침한다(Campbell & Scott-Kassner, 1995).

5. 교수 이론(Theories of Instruction)

지난 30여년간 교수 심리학자들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꾸준히 발달시켜 왔다. David Ausubel(1968)은 학습자의 기존 인지구조(advanced organizer)가 새로운 지식 습득 능력을 예견하는 강한 요소라고 평가하며 교사는 아동이 이미 습득한 정보 정도를 가능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의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사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위해 앞으로 일어날 학습에 대해 미리 조직적으로 준비해 두어야만 아동은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들 나름의 해석과 방법으로 각자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브루너의 발견 학습법(discovery method)은 아동들에게 '위험 상황'이나, '추측', 또는 '학생'으로 부터 시작되는 가설의 탐구를 하도록 격려한다. 탐구의 경험과 상황의 부조화는 창조적 사고를 하게 하는 직접적인 지시자이며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즉각적 경험과 경험 구성은 음악 탐구와 실험의 경우 좋은 예로 작용하며 아동이 음악을 듣고, 표현하고, 창작하는 동안 아동이 사고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음악적 경험은 발견 학습의 실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음악개념은 발견학습에 의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렇듯 스스로 탐구에 기초한 교육법은 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ject)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고 아울러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은 아동의 지적 수준에 적합한 랫슨을 하는 한 "어떠한 연령의 아이에게도 어떠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수 이론 심리학자인 Robert Gagne(1977)는 교수의 8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1) 아동의 관심 집중 및 지속적인 관심 유지하기, (2) 학습자의 준비 및 독려, (3) 자료제시, (4) 학습증진-학습내용의 제시, (5) 반응을 위한 조건의 제시, (6) 반응의 feedback 제공, (7) 지연도 측정, (8) 학습의 증진과 정보 전달하기가 이에 속한다. 가네의 초기 이론은 Gordon의 음악 학습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고든은 음악지도란 듣기부터 시작하여 들은 것을 기호화하고, 기호화한 것에 기초하여 즉흥적으로 변화 주기로부터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다.

II. 유아 음악 학습의 기본 요소

앞에서는 여러 형태의 교수-학습 이론이 소개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이론들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음악 학습의 요소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본 장에서는 특별히 유아교육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1. 음악 영역의 물리적 환경

유치원에서 음악영역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 음악 놀이 이론과 학습 스타일 이론은 음악 영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강조한다. 우선 음악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를 통한 다양한 음악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가구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피아노에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상황과 활동내용에 따라 항상 유동적이어야 하고 다양한 종류의 악기는 유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낮은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악기 이름은 유아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쓰여져야 하며 이름표는 각각의 악기 밑에 부착되어야 한다. 앉아서 하는 활동을 위해 가능한 마루바닥이 좋고 녹음된 음악 테이프, 노랫말 카드, 유아가 다루기 쉬운 적당한 크기의 간단한 리듬악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시청각 자료들은 교수의 활력이 되므로 항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달린 카트 위에 놓여져야 한다. CD player, 카세트와 같은 소리 시스템은 성공적인 음악교수의 기초자료로서 슬라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VCR과 함께 갖추어져야 하며 특별히 카세트와 헤드폰은 유아가 직접 조작하고 들어볼 수 있도록 접촉이 손쉬운 장소에 놓여져야 한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유치원 내의 음악영역은 밝아야 한다. 또한 신선한 공기가 있어야 하므로 창문이 많은 공간에 자리잡아야 하고 적당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에 무리가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또한 벽면이 유아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밝은 색으로 꾸며져야 하며 융판과 게시판을 이용하여 악보와 음악관련 포스터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야 한다.

2. 유아 중심적 교과과정

유아 중심적 교과과정은 유아의 사전 경험 정도와 수행능력, 과제에 대한 관심과 반응에 기초한 교수를 강조하는데 음악교수를 위한 음악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유아 중심적 교과과정이 강조하는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를 우선 파악하라: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지식과 기술, 훈련정도, 관심, 음악환경, 부모의 음악교육관과 기대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유아에게 음악지도를 할 때는 Comenius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반드시 유아가 친숙하고 쉽게 여기며, 경험하기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수동적 경험보다 능동적 경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안인희, 1974). 또한 다양한 음악적 예를 들어 줌으로써 음개념에 대한 이해를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고려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셋째, 유아가 실로폰이나 샌드블럭등을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음악놀이와 소리탐구를 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유아의 음악활동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섞인 노래 부르기, 유아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음악듣기, 다양한 악기의 소리탐색이나 악기모양 알기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음향과학에 관한 학습이 될 수도 있다(Campbell & Scott-Kassner, 1995).

3.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유아음악교사

교사는 문화의 전달자이다. 교사는 유아가 받아들이고 동화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지, 전달은 잘 되었는지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교수이론이나 강화이론, 사회화이론과 사회 학습이론은 문화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일층 더 강조한다. 그러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유아 음악교사는 무엇보다도 유아가 배워야 할 음개념과 기술을 잘 알고 아울러 전달할 내용과 방법에도 익숙해야 한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정된 음악을 들어보고, 불러보며, 연주해 보고, 놀이하는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 학습이론이 제시하는대로 훌륭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는 음악을 전달할 때 수업자체와 유아들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아울러 광범위하고 다양한 성격을 묘사하는 목소리의 사용, 유아와의 끊임없는 시선 접촉, 다양한 제스처와 신체표현은 음악수업을 보다 생기있고 활기차게 이끌 것이다.

4. 동기화와 수업 경영

어느 수업에서든 동기화의 유지는 이전 수업과 다음 수업을 이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 교사는 아동의 학습 스타일과 관심 수준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아동이 어느 시점에서 학습을 멈추고

왜 산만해지나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동기화 유지에 능숙한 교사는 아동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과 직접적인 학습 내용을 지도하는 말을 구분하여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반응과 교실 상황에 민감한 관찰자가 된다. 동기화를 바탕으로 한 아동과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이 음악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음악과 음악활동을 가치있다고 생각하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음악환경 구성을 할 때 가능한 유아가 직접 환경 구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음악 놀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규칙도 함께 만들어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재조명하며 어떤 형태의 음악활동 상황에서도 교사는 가급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의미있는 음악학습을 위하여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합한 음악 경험과 레퍼토리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유아음악교사의 첫째 의무이기 때문이다.

5. 다양한 정보를 갖춘 음악 교수

교수의 실체는 이론에 의해 안내되어진다. 음악교수와 학습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앞에서 제시한 음악놀이 이론이나 사회화 이론, 사회학습 이론이나 강화이론, 학습 스타일 이론, 교수 이론 등은 지속적인 음악교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음악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사들은 제공되어지는 학문적인 정보와 자료에 보다 익숙해짐으로써 이론과 실체를 무리없이 연결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열중해야 할 것이다.

Ⅲ. 유아의 음정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전략

앞에서 소개된 유아 음악교육학의 기저 이론과 음악 학습의 기본적 요소의 종합적인 만남은 보다 구체적인 음악 교수전략을 제시한다. 여러 음개념 중 음정감은 인간이 태어나서 습득하고 인식하며 정확하게 표현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시에(4.5-5년) 다른 음개념에 비해 더 많은 하위개념(음흐름, 음역, 음이동, 음정 패턴, 조성, 악절, 음계, 화음 등)을 가진다. 게다가 음정은 유아가 비교적 일찍부터 경험하는 음악활동인 유아의 노래 부르기를 주도하는 음개념이다(이기숙, 김영주 역, 198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아의 음악 학습 활동의 전개를 노래부르기, 신체로 표현해 보기, 놀이하기, 들어보기, 악보 읽기, 음악 만들어 보기로 구분하여, 각 활동영역에 맞추어 어떻게 음정개념을 지도할 지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령에 따른 유아의 음정 발달

유아에게 있어서 음정 개념의 발달은 연령에 따라 점차적인 변화를 보인다. 생후 직후부터 6개월 사이에는 높이가 다른 몇 개의 음정을 듣고 눈을 움직이거나 몸을 뒤척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음정 습득을 알린다. 6개월을 전후하여 시작되는 웅얼이는 기초적인 언어발달인 동시에 음정 개념 표현의 초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의 모방단계는 두 음의 구별, 두 모양의 음흐름 구별, 음정 꼴의 구별 능력과 연관되어 발달함으로써 만1.5세에 이르면 곡의 끝음을 중간음과는 구별지어 듣는 예민함을 보인다. 이 때에는 특별한 음악적 지도가 아니더라도 유아가 속한 문화 속에서 언어발달과 병행하여 음정감을 발달시키므로 유아 주변의 성인, 즉 부모나 교사는 가급적, 소리 모방 놀이를 한다거나 전해져 내려오는 동요를 많이 들려줌으로써 다양한 높이의 음정, 음꼴과 음흐름을 청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전에 들어서 익숙했던 음들을 말의 사용과 더불어 점차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성인이 제시하는 음정적 자극을 주로 모방하다가 3세를 전후하여서는 노래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노래부르기의 초기 단계에는 음흐름에 의존하여 제한된 음역에서 부르다가 연령이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 차차 범위를 넓혀 정확하게 노래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절대음정에 예민하며 악절의 변화를 신체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1.5세에서 4세아에게는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자극이 요구되는데 가급적 다양한 많은 양의 노래를 다양한 조성에서 소개를 하고 청각을 통해 습득된 음정감각을 가창이나 신체 표현, 음감놀이등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이 시기는 기본적인 음정개념이 조성감이나 악구, 또한 음계에 대한 이해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스키너의 자극-반응-자극(S-R-S)에 기초한 강화이론은 부모나 교사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자극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4세 이후부터는 음정개념을 구분하고 식별하며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단계이므로 좀 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부족했던 음악감상을 경험하게 되고 감상하는 동안, 혹은 감상이후에 발견된 음정 개념을 몸이나 이야기, 그림으로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음정변화를 키보드나 실로폰, 스텝벨등으로 연주 표현해 보며 즉흥적이며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그룹별로 합창이나 돌림노래를 시켜보고 가급적 곡의 종지를 유아들이 스스로 마치게 지도함으로써 음정 변화에 보다 예민해지도록 지도한다. 지금까지 설명된 연령에 따른 유아의 음정개념의 형성과 음정개념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음악적 자극은 아래 표1에서 요약 정리되었다.

< 표 1 > *연령에 따른 음정개념의 형성과 유아의 음정개념 발달에 필요한 성인의 음악적 자극*

연령	형성되는 음정개념	부모와 유아교사의 자극
0-6개월	높낮이가 다른 음에 반응. 소리를 모방한다.	듣기 편한 중간 높이의 음을 많이 들려준다. 아기의 소리를 모방한다.
6-18개월	다른 형태의 음흐름을 구분. 음정과 곡의 종지에 예민.	목소리 놀이. 전래동요의 소개, 녹음된 음악 듣기.
1.5-4세	익숙한 악절의 구별 및 모창. 절대 음정에 예민. 악절의 변화를 신체로 표현.	다양하고도 많은 양의 노래를 확대된 음역에서 소개. 음흐름과 악절의 변화를 몸으로 반응하도록 유도.
4-6세	가락의 높이와 이동방향 변화를 인식하여 4-5세이는 비언어적으 로 표현하고 5-6세이는 언어적 으로 표현한다.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을 늘리고 음정변화를 스텝벨 이나 실로폰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유아가 혼자 곡을 마치도록 한다.

2. 음정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

음정(pitch)은 음흐름(contour), 음역(pitch register), 음의 이동 방향(motion), 조성(tonality), 악절(phrase), 음계(scale), 화음(harmony)과 곡의 조직(texture)등의 여러 하위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각 하위개념을 발달시키는 일은 유아의 노래부르기 이외에도, 신체표현이나 음악놀이, 감상하기, 독보력 늘리기, 창작하기등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음정 구분이나 음흐름 인식은 음정개념 형성의 초기단계에 속하는데 이 때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교수전략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불러보기(가사를 붙여서, 허밍으로), 노래부르며 음정변화에 따라 손바닥이나 몸을 구부려 보기, 반대 방향의 음정으로 교사와 유아가 문답식 노래 만들기를 할 수 있으며 고무줄이나 털실, 리본을 이용하여 구불구불한 형태의 모양을 만든 후 음정이라 가상하고 노래 불러보기, 이것을 임의로 변화시켜 스텝벨로 연주해보기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음정구분이나 음흐름 인식은 음역이나 조성감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음역간 차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양팔을 벌린다거나 화살표 이동 그림을 그린 후 그것대로 연주하고 녹음한 다음 다시 연주하거나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연속적인 음정학습이 될 수 있다. 조성감이나 악절감, 음계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돕기 위하여 같이 노래 부르다가 끝음에서 얹거나 술레를 정하여 끝음 알아 맞추기, 리본이나 깃발을 들고 악절 변화에 따라 방향 바꾸며 춤추기, 감상하며 악보의 외형(outline)을 그린 다음 원래의 악보와 비교해 보기, 악보를 보며 음정의 이동 방향 분석하기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음정개념 형성의 완성단계라 할 수 있는 화음감은 5세를 전후하여 실시 가능하며 무반주 합창이나 윤창, 화음창, 화음변화에 따라 악기 반주를 하거나 행진을 하다가 화음이 바뀔 때 악기나 행진 방향 바꾸기를 통하여 화음감의 발달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 표2에서 요약 정리되었는데 여기에서 소개된 교수 전략은 특별히 제반 음악활동이 가능한 3세아-6세아에게 적합한 활동으로서 음정의 하위 개념별로,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여러가지 음악활동 즉 노래부르기, 신체표현, 놀이하기, 감상하기, 독보력 늘이기, 창작하기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 표 2 > *3세-6세아에게 적합한 음정의 하위개념 발달을 위한 여러가지 음악활동 *

	음정 구별과 음흐름 인식	음역, 음이동, 음정	조성, 악절, 음계	화음과 조직
노래부르기	다양한 음정패턴의 곡을 가사 붙여서 혹은 허밍으로 불러보기.	높고 낮은 음의 극단적인 예를 들 고 손모양으로 표현하며 노래하기.	노래부르다가 곡의 종지 음을 알아 맞추기. 악절 나누어 부르기.	무반주 가창
신체표현	노래부르며 손바닥이나 몸을 위 아래로 움직이기. 코다이의 손계명창.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이기.	교실을 돌아다니다 끝음에서 앉기. 스카프, 리본, 팔로 방향 바꾸며 춤추기.	두개의 화음곡에서 화음이 바뀔 때 돌기.
놀이하기	교사와 유아가 교대로 반대 방향의 음정 패턴을 소리내기	지시에 따라서 높고 낮은 음을 악기에서 찾기	같은 길이의 노래를 손가락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끝음에서 만세하기.	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화음을 넣어 노래하기.
감상	두음이나 음흐름을 손바닥과 손등으로 표시하기	손바닥으로 이동 방향 나타내기	트레이싱지를 악보 위에 놓고 악절을 그린 다음 원래 악보와 비교하기	
독보력	고무줄을 당기거나 늘어트려 만들어진 모양대로 노래하기	자기 손을 가슴에 놓고 이동하며 노래하기	악보를 보며 상반되는 악절 찾아내기	
창작하기	주어진 음흐름을 악기를 주고 변화 시켜보기	높고 낮은 소리를 만들어 녹음한 후 몸동작으로 표현하기	8마디 문답형으로 즉흥 놀이하기	

IV. 결론 및 제언

이론적 배경이 결여된 주장은 지속적인 추진력을 도모하기에 역부족하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는 학문의 전문화(專門化)를, 연결 학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리지어 나갈 것을 그 어느 때 보다는 강조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학이란 커다란 학문영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연구의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는 유아음악교육학은 이제 인접한 여러 교육학적 이론을 수렴하고 재구성함으

로써 유아음악교육학의 이론적인 정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나라 유아 교육 현장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용시켜야 마땅하다. 이는 곧 유아를 교육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처사이다. 왜냐하면 피교육자, 즉 유아 개인의 음악 학습 능력과 흥미도, 선호하는 음악 학습 방법, 음악 훈련의 정도와 환경적인 차이, 그리고 유아가 소속된 문화의 특징은 반드시 음악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유아음악교육학을 뒷받침하는 여러 심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교육학자들의 인접 이론들(단계설, 음악 놀이와 사회화 이론, 사회 학습이론과 강화 이론, 학습 스타일 이론과 교수 이론)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유아음악교육의 실천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되기 까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학습의 기본요소를 물리적 음악 교육환경과 아동 중심적 교과과정, 교사의 역할, 수업 경영의 요령, 그리고 정보 사회에서의 음악 교육자의 자세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끝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3세-6세의 유아들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음개념인 음정감의 발달을 위하여 교수전략을 짜 보았는데 특별히 이것을 노래부르기, 몸으로 표현하기, 놀이하기, 음악듣기, 악보 익히기, 창작하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음악의 본질적 개념지도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 음악교육자와 음악교육연구가들에 의해 누누히 강조되었지만 음악교육의 본질적 접근을 위하여 특히 저연령층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 수업은 대체적으로 미리 준비된 교수계획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즉흥적인 상황에 의존하여 다른 학습으로의 전이과정으로 치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음악영역의 물리적인 환경구성도 다른 학습영역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곧, 우리 나라 유아 음악교육가는 물론 유아교육자들 간에,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결핍과 음악교육에 대한 목표감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아음악교육학의 이론적 배경이 다른 학문에 비해 취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된 음 개념 중 음정 이외에도 리듬이나 세기, 음색, 곡의 형식등에 대한 지도 전략이 유아 음악교육학의 이론적 테두리 안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에 기초하여 한층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며 조직적으로 짜여져서 현장의 유아음악 지도자들에게 폭 넓게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연. (1994). 유아음악교육학의 영역. 음악교육연구 제13집. 한국음악교육학회. 197-208.
- 안인희. (1974). 교육 고전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기숙, 김영주(역). (1985).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문사.
- 한국인간발달학회(편저). (1995). 유아의 심리. 서울: 중앙 적성 출판사.
- Ausubel, D.P. (1968). Educational psychology. NY: Holt, Rinehart & Winston.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uner, J. (1966).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Campbell, P. S. and Scott-Kassner, C. (1995). Music in childhood. NY: Schirmer Books.
- Gagne, R.M. (1977). The conditions of learning. NY: Holt, Rinehart & Winston.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A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Y: Basic Books.
- Landis, B. and Carder, P. (1972). The eclectic curriculum in American music education: Controbutions of Dalcroze, Kodaly and Orff. Washington D.C.: MENC.
- Piaget, J. (1952).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Percy, M., & Berlyne, D.E., Trans.). London U.K.: Routledge & Kegan Paul.
- Restak, R.M. (1979). The brain: The last frontier. Garden City, NY: Doubleday.
- Sahakian, M.L. and Sahakian, W. (1974). Rousseau as educator. NY: Trwayne Publisher.
- Skinner, B.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Y: MacMillan.
- Sosniak, L. (1986). Three phases of learning. In B.S. Bloom (Ed.).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Y: Ballantine Books.
- Vygotsky, L.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BSTRACT

Teaching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itch Concept for Preschoolers

Young-Youn Kim

To provide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some theories on education, psychology, sociology, anthropology and musicology are reviewed, and practical guidelines and suggestions are prepared. The topics of theory considered are 'stage and phase' theory, 'musical play and socialization', 'social learning and reinforcement', 'learning style, and 'instruction'. The important guideline for the effective delivery of instruction by teachers to preschool children is about the classroom environment, which should be emphasized in music teaching, a child-centered curriculum, the teacher's role as cultural transmitter, motivation and management in the teaching of music, and teacher's disciplines with the information and high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Accordingly, based on the theories and practice, several teaching strategies with regard to singing, moving, playing, listening, note reading and creating with focus on the development of pitch concept for preschoolers are suggested to be included in teaching of music in the preschool settings.

Furthermore, as a suggestion, teaching strategies need to be developed with focus on rhythm, loudness, timbre and form of music besides pitch concept for the younger children.